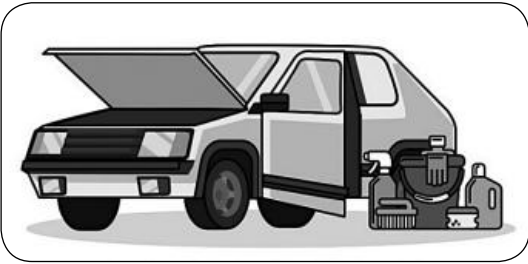




자동차 관리의 시작은 바로 세차다. 물론, 자동 세차 기계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새차인 경우에는 흠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셀프 세차를 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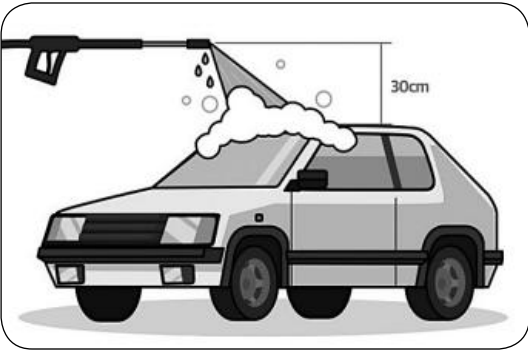
셀프 세차는 고압수를 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이지만 여기에 간단한 몇 가지 노하우만 더하면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https://content.v.kakao.com/v/cYe27smme9>)가 세차의 달인으로 만들어주는 셀프 세차 노하우를 소개했다.

■ 세차 전 차 문과 보닛 열기



세차 전 10분 이상 운행을 하였다면, 차량의 엔진과 브레이크는 아직 뜨거운 상태다. 이때 바로 차가운 물로 세차를 시작할 경우 가열된 브레이크 로터와 휠에 미세한 변형을 가져올 수 있다. 차량이 뜨거운 상태라면 세차를 시작하기 전에 차량 문과 보닛을 열어 차의 열기를 식히는 것이 좋다.

■ 고압수는 위에서 아래로



모든 세차 작업은 대부분 위에서 아래로 진행된다. 고압수를 뿌릴 때도 차량 지붕 가운데에서부터 시작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된다. 고압수는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뿌리는 것이 좋은데, 너무 짧으면 고압수가 세서 페인트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 이상 멀어지면 효과가 떨어지니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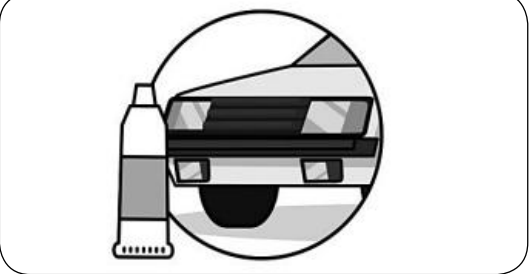
좋다. 또한, 휠과 타이어를 세척할 때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뿌려주면 깔끔하고 빠르게 세척할 수 있다.

■ 미트 질은 최대한 부드럽게



보통 세안을 할 때도 거품을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처럼 세차 시 미트 질을 할 때도 최대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 오염물질 속에는 흙과 먼지, 그리고 다양한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털어내지 않으면 먼지 입자가 사포 역할을 하여 차량 표면에 흠집을 유발할 수 있다.

■ 전조등은 치약으로 해결



대부분 차량의 전조등의 겉면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외부 자극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파편이나 먼지 입자에도 흠집이 생기기 쉽고, 이는 야간 운전 시 운전자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치약을 적당량 짜서 수건에 묻힌 뒤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치약의 연마 성분이 플라스틱에 광을 내는 효과가 있어 전조등의 시야를 밝게 해준다.

■ 휠, 타이어 디테일링

자동차 디테일링이란 내 차의 외관과 디테일을 꼼꼼하게 관리해 주는 것으로, 세차 후 산화 방지 작업, 광택 작업 등을 통해 유해 물질이나 오염으로부터 자동차 내외부를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차량들은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 향상을 강조하다 보니 브레이크 패드의 소모량이 늘어나면서 분진 또한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휠은 타이어 다음으로 도로 면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운행 중에 발생한 고열로 인해 휠에 들러붙은 오염물질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분진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단순 세척이 아닌 휠 클리너를 사용해야 깨끗하게 휠을 관리할 수 있다. 보통은 철분 제거 기능이 있는 휠 클리너를 쓰면 되지만, 휠이 특수 재질인 경우 pH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알로이 휠(알루미늄 합금 휠)의 경우 대부분의 휠 클리너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크롬 휠이나 코팅이 안된 폴리쉬 휠의 경우 pH가 산성인 휠 클리너는 휠에 얼룩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중성이나 알칼리성 휠 클리너를 이용한다.



알로이 휠 (알루미늄)

- ▶ 시중의 대부분의 휠 클리너 사용
- ▶ 휠의 오염도에 따라 pH 선택



크롬 휠 or 폴리쉬 휠

- ▶ pH 중성, 알칼리성 휠 클리너 사용
- ▶ 산성 휠 클리너 사용 금지

휠 디테일링을 할 때에는 절대 주행을 막 마친 직후 시작하면 안 된다. 휠과 브레이크 디스크가 아직 온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차가운 물을 뿌린다면 디스크에 변형이 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휠이 충분히 식은 뒤에 디테일링을 시작해 주어야 한다.

타이어의 광을 살려주려면 스펀지를 이용해 타이어에 광택제를 발라준다.

사실 셀프 세차는 시간과 체력적 소모가 동반되기 때문에 자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셀프 세차를 하면 내 차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차량 상태 점검을 위해서도 좋다.

그래픽=삼성화재 다이렉트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업종: _____

(영문): _____

업소명(영문):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

